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제7차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신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며, 반가움과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이 자리를 마련하신 불교여성개발원 임원여러분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후원해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자 불교여성개발원 이사장이신 지원스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을 비롯하여 가족지원센터, 교정교화센터,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웰다잉운동본부, 명상리더십센터, 사찰음식문화센터, 불교여성연구소, 위즈덤 합창단 등, 저마다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산하기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현대인의 삶과 문화를 성심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불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실시한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업이 이제 7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선정된 여성불자 108인은 사회 각 분야에서나 포교·신행 면에서 10년 이상 활동해 오신 전문가로서, 맑은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법수호와 중생교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1차에서 7차에 이르는 700여명의 ‘여성불자 108인’이 언제나처럼 평소의 원력을 모아 자비를 실천하는데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서로를 보살피는 행복이 넘치고 나아가 모든 인류가 서로를 돕는 문

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